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2월 11일 (제1179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고난이 유익이라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찌 될까? 살기 좋을까? No! 사막화된다. 인생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어찌 될까? 역시 사막화된다.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우리 옥수수밭에는 제발 바람이 불지 않게 기도해주세요. 바람 때문에 작년에 옥수수 농사를 망쳤거든요.” 목사님은 성도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계절이 바뀌고 그 성도가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침뚫은 얼굴이다. 목사님이 “아니, 얼굴이 왜 그러니까? 옥수수밭에 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까?”라고 물으니 성도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요, 기도해주신 대로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 옥수수 알이 맺히지 않아 이번 농사를 망쳤습니니다. 바람이 불어야 암수술에 알갱이가 생기거든요.”

그렇다.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태풍도 불어야 생태계가 살아난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것은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고난이 유익이라”(시119:71).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4:11~12)라고 했다. 그는 산전수전을 겪어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했다.

나 역시 그렇다. 내 목회는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에 비유할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내가 이에 감사함은 그것을 통해 늘 하나님을 뵈었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이라! 경험을 통해 나는 지혜를 터득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10)는 욥의 고백이 진정한 내 고백이다.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는가? 인생에 폭우가 내리는가? 눈보라가 치는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 훗날 그것이 당신의 멋진 추억담을 만들기 위한이니, 좌절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행6:4).

목사님은 3박 4일 동안의 추계산상집회 기간에 진행되는 총 8회 집회 가운데 5회 집회를 직접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셨다. 하루 3회 집회 중 오전과 저녁 집회를 도맡아 하신 것이다. 해외집회에서 오전에 목회자 및 실업인 세미나를 진행하시고, 저녁에 대형집회를 인도하시는 스케줄 대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셨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했던 일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

로 미룰 수 있으니 목사님으로서 전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집회에 집중하실 수 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는 그러실 수가 없을 텐데 과연 그 모든 스케줄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었다. 다행히 집회 기간에 모든 상담을 폐하시고 기도에 전념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본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결단을 기뻐하셨는지, 이번 집회는 ‘너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목사님께 말씀하셨단다.

이번 집회 기간에 가장 인기를 끈 것은 아

모세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때의 기력보다 더 강건하니 어떤 전투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청년 모지않은 기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의 꿈은 실현되어 가나안 족속 아나 사람 가운데 가장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했습니다. ‘항상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시 40대의 기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코로나도 끝나



영, 혼, 육이 살찌는 기도원 추계산상집회 광경(2022년 11월 28일~12월 1일, 장성예루살렘기도원)

인데, 지난 하계집회 때도 느낀 점이지만, 훨씬 더 영감 있고 성령 충만하신 모습이었다.

지난 하계집회 때 처음 이런 계획을 선포하셨을 때, 곧 해외집회에서 하였던 것처럼 오전 세미나와 저녁 집회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에 가장 먼저 걱정되었던 것은 상담이었다. 기도원집회 때마다 오후 상담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야 만나기 힘든 목사님을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나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찾아오는 성도들 모두를 일일이 만나 사연을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해보니 해외에서는 상담할 일이 거의 없다. 집회 전에는 기도해야 한다는 원칙을 딱 내걸고 일체의 만남을 뒤

침 시간에 제공된 토스트와 달걀부침 메뉴였다. 수고하시는 분들이야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고생이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토스트와 달걀부침, 과일 및 음료를 들고 삼삼오오 둘러앉아 아침 식사 시간을 즐기는 모습은 모두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영, 혼, 육이 살찌는 기도원이 아닐 수 없다.

목사님은 마지막 예배를 통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니 꿈을 버리지 말자’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섰던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땅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년 전

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전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북남미, 오세아니아까지 오대양 육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지구촌을 내게 맡겨주소서!’ 지구촌을 예수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는 우리의 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영혼들을 우리 교단에 맡겨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남북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꿈을 버리지 맙시다.”

끝으로 이번 추계산상집회를 위해 헌신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단3:10~30)

너는 어느 때 하나님께 기억된 것 같으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실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실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느 때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성경 속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부터 고레스왕 시대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느브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산해진미를 거부했습니다.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이라 안 먹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 때에 3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한 칙령이 발효됨을 알고도 행해왔던 것처럼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중 일기를 보고서 모르드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에 대한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러할진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보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화형되는 줄 알면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풀무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를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사 그들을 불에서 건지셨고, 더욱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라 부르는 아브라함,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세에 얻는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그에게 아낌없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자들이 괜히 향유를 허비했다고 핀잔을 주자 예수님은 ‘그것은 장차 있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시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막14:9)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이 여인이 꼭 박힌 것입니다.

또 빌립의 초청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1:47)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공간이 아니라 간사함이 없는 그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계산상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집회 기간에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설교해야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총회장 이초석 목사

서 제게 “너는 어느 때 네가 기억된 바 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당당히 “알다마다요.”라고 답했습니다. 12월 22일이면 목회 38년입니다. 그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어머니에게 쫓겨났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주장만 하지 않으면 무탈할 것을, 타협하지 않아 교계에서 제명되었지요. 저는 그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때맞추어 어느 성도가 현금 300억원을 제공할 테니 교회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금을 거절하고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회원들이 미국을 열고 뛰라며 미국 명예시민권을 가지고 왔을 때 저는 그 시민권을 접시 밑에 깔아버리고는 ‘미국을 업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어야 성공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박수를 치셨을 겁니다.

라트비아 리가 집회 때, 집회 장소에 총리가 온다고 하니 많은 목사들이 집회는 뒷전이고 총리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집회 시간이 다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아 제가 단에 오르려고 하자 그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총리와 만나고 들어가시라’ 애원했습니다. 저는 “나는 예배드리러 왔다.” 하며 단호히 거절하고 단에 올랐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낮설고 물선 땅에서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했을 때, 야외 집회

중비가 와서 마이크가 나가자 육성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를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자는 당당합니다. 히스기아가 그의 재위 14년이 되었을 때, 밖으로 산헤립이 침공했고, 자신은 죽을병에 걸렸습니다(사38:1). 이에 벼랑 끝에 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사38:3).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마음을 돌이키사,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 오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사38:5~6)고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억하실만한 어떤 일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즉위하자 곧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산당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왕하18:1~7). 또 그는 모세의 놋뱀이 우상 숭배의 대

상이 되어 있음을 알고 그것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선히 여기사 기억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느13:29:31).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고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단행한 일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더불어 직분을 더럽힌 제사장들도 기억하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기억하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피난하고 있을 때, 다윗군에게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제공한 바실래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의 자녀를 데려다 은혜를 갚았지만(왕상2:7), 압살롬과 아브넬을 죽인 요압은 안 좋게 기억되어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21장에,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겔21:24)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것이 기억된 바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는 만사형통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멸에 들어갈 자를 주님이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묻습니다. “저를 언제 보셨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있는 자를 찾아볼 때 보았노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영멸에 들어갈 자들은 그 상황에 나 몰라라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좋은 기억이 될 만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어느 때에 저를 보셨나이까?” “네가 추운 날씨에도 새벽부터 나와 봉사할 때 보았노라.”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최고의 축복, 만남

일전에 이현승 목사가 ‘호주 유학 시절에 도움을 준 사장님이 결혼을 한다’며 주례를 부탁해왔다. 상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나이도 무려 32살이나 어리다고 한다. 얼마나 좋아라 하던지, 신랑의 입은 껏가에 걸려있었다.

그런데 주례를 하려고 보니 아내가 이슬람교도가 아닌가! 게다가 한국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거다. 그렇다고 호주 성도님이 우즈베키스탄 말을 할 줄 아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나도 모르게 안타까움이 일었다.

다음 날, 물리치료실에서 만난 치료사는 완전 예수쟁이였다. 입만 열면 ‘예수, 예수’다. 과거 주먹 세계에서 알아주는 ‘형님’이었다고 했다. ‘보스’ 시절엔 65평 집에 살다가 이젠 20평 집에 살지만 이마저도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더구나 주위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이젠 방황하는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자기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귀해 보여 예수를 만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더니 지금의 아내를 만났기 때문이었다고 간증한다.

이를 동안의 만남으로 생각이 깊어졌다.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음식의 맛을 내고 방부제도 되지만 먹지 않으면 죽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 극히 나쁜 독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소금은 소듐염과 크로라이드라는 두 가지 원소가 합하여 된 것인데, 사람이 이 소듐염과 크로라이드를

각각 따로 먹으면 죽게 된다. 놀라운 일이다.

물은 수소와 산소, 이 두 가지가 합하여 된 것이다. 그런데 산소와 수소 모두 따로 있으면 불에 탈뿐 아니라 불씨를 더욱 키우는 물질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하면 정반대로 불을 끄는 물이 된다니!

자석 중에서 아주 강력한 영구자석인 알리코 자석이 있다. 알리코 자석은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를 합해서 만드는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모두 자성(磁性), 즉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 그런데 그것들이 합하여 아주 강한 자석이 된다고?

그렇다. 이처럼 이 세상 만물도 무엇을 만나는지에 따라 그 성질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 최고의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며, 어떤 반려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감과 성취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예수를 만나야 한다. 그래야 영생을 보장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다스려 나갈 것 아니겠는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지, 받은바 은혜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지, 본향을 향하는 열심은 어떠한지?’ 하는 점 말이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그 중심을 살피자!

신현명 목사

:: 성경에세이 ::

욕심이 문제다

여보게!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다 욕심 때문이라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잠28:25).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약4:1~2)라고 말했다. 욕심이 다툼의 원인이라는 거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형제간에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예수님을 찾아와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눅12:15). 욕심을 버리면 안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셨네. 노사가 싸우는 것, 국회에서 늘 싸움판이 벌어지는 것, 다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여보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15)는 말씀을 아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떼와 소떼에게 좋은 초장을 주려는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지. 그때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고자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라며 서로 이제 갈라질 것을 제안했다. 롯은 욕심이 발동하여 열른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네.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쪽이 탐나지 않았을까만 욕심을 버린 거지. 좋은 곳으로 간 롯이 잘 되었는가? No!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 하지 않았나.

아담에게 선악과를 욕심나게 해서 죄를 짓게 한 마귀는 같은 수법으로 우리로 다투게 만든다네. 욕심을 집어넣어서 말일세. 고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네(갈5:24). 그러면 싸우지 않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봉우

:: 책을 펴다 ::

초심(初心)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여인이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자 남자는 놀라 말했다. “자기야! 당장 병원 가자. 종합검진 받아야 돼. 감기는 만병의 원인이거든.”

그 후 그들은 결혼했는데 여자가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자, “여보, 내가 약국에 가서 약 지어올게.”하며 약국으로 향했다.

결혼한 지 한 해가 지나고 여자가 이번에도 감기에 걸리자, “아니, 감기약이라도 한 알 먹지?” 하며 짜증을 냈다.

아이가 하나 생기고 여자가 감기에 걸려 콜록대자, “이러다 아이한테 옮기면 어쩌려고 그래?” 하며 남편은 핀잔을 준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여자가 감기에 걸리자, “아니, 집안 꼴이 왜 이래? 아무리 감기 걸렸지만 할 일은 해야지, 애들 밥은 먹인 거야?” 하며 화를 냈다.

더 많은 세월이 흘렀다. 아내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자, “무슨 여자가 그렇게 약골이야? 오뉴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당신은 뻥 하면 감기야?” 하며 문을 팡 닫고 나가 버린다.

상황은 같다. 그러나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이 다르다. 왜? 마음이 변해서다. 뜨겁던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초심(初心)만 간직할 수 있다면, 처음 마음 그대로만 지속할 수 있다면 영·혼·육에 성공 못할 사람이 없고, 이혼할 사람이 없고, 변절자는 없을 것이다. 초심을 지켜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4~5).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선(先) 감사, 후(後) 기적

일본의 기독교인 이무라 가즈오는 오사카의 한 병원 내과 의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어느 날 섬유육종암으로 오른편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초인적인 의지로 의사의 사명을 다하다가 암이 폐로 전이 되어 31살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기록한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란 책으로 출판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제목의 글이 인상적이다. 글은 이렇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는 것이, 손이 들고 다리가 돌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 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

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복이 복인 줄 모르면 절대 감사할 수 없다.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남의 탓을 하며 불행한 삶을 산다.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고서야 그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복인 줄 깨닫는다.

신명기 1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감사하라 말씀하셨다. 선(先) 감사하라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사역도 선(先) 감사, 후(後) 기적의 역사였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 감사했더니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이 살아났으며, 보잘것없는 보리떡 다섯 개를 들고 선 감사했더니 장정만 오천 명이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이제 주실 것을 인하여 선(先) 감사를 하자. 그리고 달라는 기도보다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하자.

임택함 목사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실천하시나요?

몇 년 전 어느 에세이를 읽다가 서울시에
서 진행하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알
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온누리상품권이
나 문화상품권, 현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
을 수 있는데, 혜택받기가 아주 쉬워요.
저는 별다른 노력 없이 매년 10만 원가량
의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에서 제공하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게
놀라워서 한동안은 사람들을 만나면 꼭
가입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족에게는
여러 번 말했고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참
좋은 혜택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
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
래에 직장 동료 두 명에게 말해주었는데,
딱 한 명만이 그 자리에서 즉시 가입하더
라고요.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나중
에 하겠다고 미루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
는 당연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
을까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 바로 실천하려고 노
력합니다. 이시대 목사님이 고치고 싶은
습관과 갖고 싶은 습관을 집에 가서 적어
보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일기장을 펼치
고 적습니다. 이월드 목사님이 목적을 위
해 여러고성을 도는 설교를 했던 다음 날

에는 저의 소망을 품고 출근하기 전에 여
리고성을 돌았고요. 마지막이 되는 7일째
에는 비가 온다기에 우비와 갈아신을 운
동화까지 준비했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
이 신학생들과 금식기도를 하신다고 설교
한 날에는 저도 하루를 금식하며 저의 소
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헌금을 드리고 일을 시작하신다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날에는 저도 천 배
로 자라길 바라는 씨앗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물론 실천한 것보다 실천하지 못한 것들
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전히 반복해서 짓
는 죄가 있지요. 전도하는 일은 항상 마
음의 짐처럼 남아있고, 온유함이 부족해
서 가족에게 화를 내고는 뒤돌아서 회개
하며 사과하는 일도 잦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루를 나태하게 보내는 날
도 빈번하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만 집중하자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딴생각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개
인적으로 벌여놓은 일들이 많았던지라 귀
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마음으
로는 예배 후에 해야 할 일들을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최근 수요일예배와 주일예배에서 신령과 진

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설교 말씀을 반
복적으로 들으면서 저의 생활을 개선하기
로 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드리는 일 외
에는 해야 할 일을 남겨두지 않기요. 무
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토요일까지 끝
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가장 최적의
컨디션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모양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
력합니다. 네, 노력이 필요해요. 깨달았
다고 해서 저절로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실천한 노력이 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녀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는 과거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욱 마음
에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지금
의 어떤 모습 또한 차츰차츰 변화되어 지
금보다 더 나은 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설교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을 실천하는 자녀, 하나님이 예배할 수밖
에 없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은혜

dopa10203@naver.com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올바른 기도

당신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
도하는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둘
중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사실 기도
의 시작은 내가 원하는 것, 즉 나의 소원
에서부터 출발한다. 이점에 대해 사람 대
부분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께 나의 심정을 펼쳐놓는 것이다. 그렇다
고 해서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
해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님께서는 이미 나의 형편과 마음을 나 자
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마음의 동기와 형편
과 지금의 상황,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
야 하고 얼마나 기도해야 하며, 또 어떻
게 기도해야 할까? 마태복음 6장 5~7절
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범할 수 있는 오류
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다.
첫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하지 말라.” 즉
위선적인 모양의 ‘종교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모습의 기도는
위선적이라는 것. 그러니 기도할 때 세
속적인 욕망이 담겨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

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
이다.
둘째,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는 기도의 동
기를 묻는 ‘은밀함’에 대한 것이지 않을
까 싶다. 이 은밀한 동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문제
인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아무도 보
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아마 필자를 비롯
해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은밀
한 관계에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이 기도
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가를 드
러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
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길 바라
신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는 기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
라는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Oswald
Chambers) 목사는 「거룩과 성화」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린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삶 가운데 위대한 능력을
접하는 문이 열렸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저 ‘도와주세요’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그것
이 바로 올바른 기도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시편
34:4). 이 말씀의 핵심은 ‘네 마음의 소
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것이다. 왜냐하
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소원은 잘못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는 나 자신이 하
나님을 나의 생활 속에서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섭
리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한
님과 대화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극을 하지 말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
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
하게 기도하자. 그리하면 내 생각과 마음
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
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까 싶
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
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시145:18).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초보 골퍼의 깨달음

3년 전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 기념으로
잡아준 골프 라운딩을 시작으로 열떨결
에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다. 1달 정도 근
처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첫 번째 라운딩
은 어찌어찌 공만 맞추며 18홀을 뛰어다
닌 기억만 난다.
골프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인지 잘못
된 자세로 연습하게 되니 열심히 할수록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실력이 늘지 않았
다. 오히려 나보다 늦게 시작한 지인들한
테도 지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처음부터
배우는 심정으로 골프 코치를 찾아가 레
슨을 받기 시작했다.
코치는 골프공을 목적지까지 보내려면
힘을 빼고, 골프채가 정해진 궤도로 자
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몸을 움직이면
된다고 자세를 교정해주었다. 너무 간단
한 처방에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믿고 따
라했더니 정말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공
이 똑바로 멀리 날아가서 놀라웠다. 지금
까지는 공만 멀리 보내려는 욕심에 어깨
에 잔뜩 힘만 주고 골프채를 휘둘러댔다.
잘못된 자세로 땅만 짚어대서 몸이 아픈
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거라 착각했
다. 무지했던 지난 시간이 후회되고 안
타까웠다.

진리는 너무 간결하고 길은 하나인데 자
신의 방법을 고집했던 잘못된 열심이 오
히려 삶을 힘들고 고단하게만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골프는 18홀을
망쳐도 연습해서 다음에 잘 치면 되지만,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내 생각과 의
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것
을 결심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본다.
“오늘도 내 삶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흘
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는 골프공처럼 천
국을 향해 똑바로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
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
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송명국 집사

